

Deloitte Insights

May 2026



IFRS 18 실무대응전략

재무제표 표시 변화와 성과보고 대응 체계 전환

IFRS 18 CoE | 한국 딜로이트 그룹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Contents

Executive Summary: IFRS 18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와 대응 방향	03
01 IFRS 18의 핵심 변화와 실무적 의미	04
02 영업손익 변화의 영향과 기업의 체크리스트	08
03 MPM 식별 및 공시 대응	11
04 실무 실행 체계: CoA·ERP·데이터 정비	14
05 단계적 도입 로드맵과 사후 관리	18

Executive Summary

IFRS 18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와 대응 방향

IFRS 18은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과 성과지표 공시 체계를 재정비하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공시 기준이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 정의가 변경되면서 다양한 혼란이 예상된다. 첫째, 비경상적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됨에 따라 영업손익을 통한 미래 현금흐름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둘째,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상세 공시 요구로 인해 작성부담, 감사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업 내 KPI 재설정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손익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나, 지금까지 K-IFRS 영업손익을 중요한 판단지표로 사용해왔던 정보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한국회계기준원 설문조사 결과

순위	주요 우려사항	응답비중
1	IFRS 18 도입 전·후 기업 영업손익의 비교가능성 저하	84%
2	현재 기업 성과지표와의 불일치	49%
3	현행 법률 및 행정 규정과의 불일치	46%
4	신용평가기관의 요구사항과의 불일치	42%
5	회계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	40%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딜로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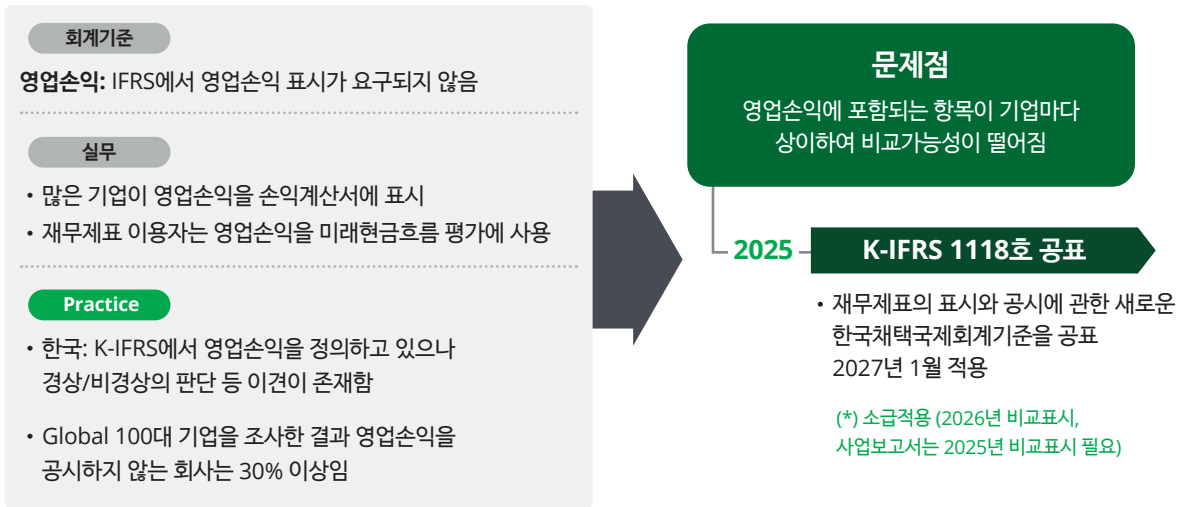
변경사항 중 MPM 공시는 기업의 주요 점검 영역이다. MPM은 공개적 의사소통에 사용되었거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손익의 중간합계로, 정의, 계산방식, 조정내역 등의 공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진설명서,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 등 재무제표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해 온 성과지표가 MPM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 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 지표의 추가·변경·중단에 따른 공시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주석 작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성과 논리와 재무제표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IFRS 18 대응은 회계정책 검토만으로 완료되기 어렵다. CoA 점검부터 시스템 업데이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실무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손익 범주와 병행 공시 체계를 실제 결산과 공시 절차에 반영하려면 CoA 계정 세분화, G/L Master 정비, 계정과목-표시항목 연결 기준 수립, 리포트 버전 관리, 비교정보 재작성, 데이터 정비 및 이관, XBRL 반영, 내부통제 업데이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회계, 공시, 자금, 경영기획, IR, IT, 내부회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 전부터 영향 분석과 예비 산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01 IFRS 18의 핵심 변화와 실무적 의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 간 재무성과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제정하였다. 기존 IAS 1 체계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영업손익 표시 방식이 기업별로 달랐고, 일부 기업은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자체 성과지표를 활용해 재무성과를 설명해 왔다.

그림 2. IFRS 18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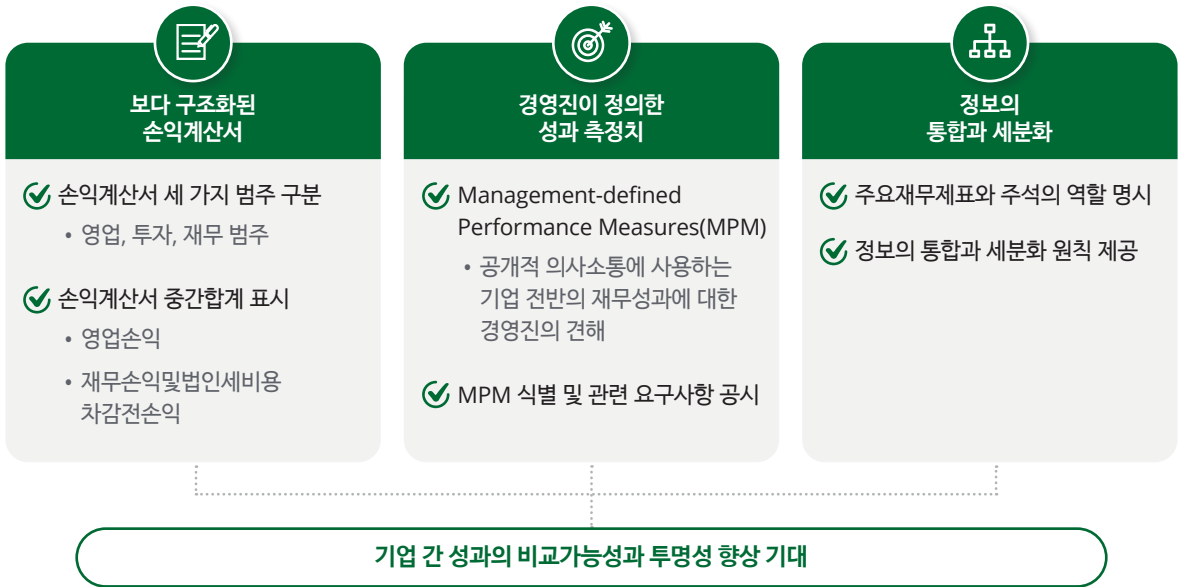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분석

IFRS 18은 이러한 표시 관행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이 중 영업·투자·재무 범주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교화된 핵심 범주이며, 기업은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IFRS 18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식별 및 관련 요구사항 공시도 요구한다. 추가로 IFRS 18은 주요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는 '정보의 통합·세분화' 원칙을 함께 도입해, 재무성과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3. IFRS 18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요구사항



출처: 딜로이트 분석

국내에서는 K-IFRS 제1118호가 공표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IFRS 18은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시 비교표시 재무제표도 함께 재작성해야 한다. 국내 적용 과정에서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IFRS 18 기준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K-IFRS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새로운 구조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투자 및 재무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영업 범주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IFRS 18에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하는 중간합계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일 계정으로 관리되던 손익을 발생 원천과 거래 성격에 따라 범주를 구분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영업손익의 변동뿐 아니라 KPI, 공시자료, 금융기관 제출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4. 보다 구조화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세 가지 범주 구분		
투자범주(문단 53)	재무범주(문단 59)	영업범주(문단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공동/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수익(채권) • 배당수익(주식) • 임대수익 및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자기지분상품 수취 및 반환 • 금융부채 소멸 (예: 차입부채, 사채) ☑ 그 밖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관련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부채 이자비용 •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성이 있거나 비반복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 • 투자 및 재무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포함 ← 간여 범주 ☑ 영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가능 •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성과를 보여줌

특정손익의 분류	
IFRS 18에서 세 가지 특정손익은 관련된 손익의 범주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구분	IFRS 18 분류 기준
외환차이 및 순화폐성 포지션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부터의 손익이 분류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 (ex: 상품 판매로 인한 외화수취채권에 대한 외환차이는 영업범주(상품판매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 ☑ 단,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외환차이를 영업 범주로 분류 가능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의 분류는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이 사용되는 경우 그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 ☑ 단,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분류를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어간다면 영업 범주로 분류
복합계약에서의 수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에서의 수익과 비용분류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 및 복합계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IFRS 18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을 도입하였다. MPM은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재무제표 외부의 공개적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를 의미한다. 기업은 기존에 사용해 온 자체 성과지표가 MPM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해당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차이 조정내역 및 관련 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MPM 대응은 기존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공시 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IFRS 18은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을 제시한다. 기업은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적절히 통합하되,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분화해야 한다. 특히 '기타수익', '기타비용' 처럼 포괄적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금액의 중요성, 구성 항목의 성격, 정보 유용성을 기준으로 명칭과 주석 설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표시 변경을 넘어, 공시 정보의 설명력과 데이터 상세화 수준을 함께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02 영업손익 변화의 영향과 기업의 체크리스트

IFRS 18 도입으로 손익계산서 구조와 영업손익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 그 영향은 재무제표 작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존 영업손익은 KPI, 사업계획, 성과평가, 차입약정, 금융기관 제출자료, IR 자료, 이사회 보고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은 IFRS 18 도입 전후 영업손익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그 영향이 KPI, 경영관리 체계와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 영향

IFRS 18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 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IFRS 18 영향 항목을 정확히 짚고, 재무제표 구조를 한 번에 바꿔야 한다. 즉 CoA 완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재무제표가 시스템 내에서 일관적으로 생성되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재무제표 작성 체크리스트	재무·회계 회계팀 / 경리팀	자금 재무팀 자금담당/ CFO	IT·시스템 IT팀 / ERP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 변경 대상 완전성 점검 및 구조 정비 • 주식·현금흐름표 필수 항목 중심 Template 정비 • 외화·파생 등 주요 분류 항목 중심 검토 • 재무제표 시뮬레이션 및 영향 검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548235;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전체 CoA 재설계가 아닌 IFRS 18 변경 항목의 완전성 확보 ➤ 완전성이 외부감사 대응의 핵심</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 변경항목 체크 및 매핑 테이블 작성 • IFRS 18 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 MPM 산출 및 주석반영 • 원가배부 로직 검토 • 주요 판단사항 문서화 및 감사인 사전협의 • 내부회계 통제활동 업데이트, MPM 산출 통제활동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covenant 조항 영향 검토 • 금융기관 사전 협의 필요 사항 점검 • 주요 약정서 내 재무비율 조항 점검 • 외환 및 차입금 관리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내 신규 CoA 코드 등록 및 기존 계정 비활성화 • ERP 재무제표 양식 변경 (벤더 협의 또는 직접 설정) • CoA 변경 후 전기 비교 결산 수행 및 오류 검증

공시 영향

영업이익 변화는 공시와 금융기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한 공시영향을 검토하고 금융기관과 이사회 대상 설명 포인트를 정리해야 한다. IR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가능한 수준의 공시 준비가 필요하다.

공시 체크리스트	대외소통·법무 CFO/ 법무팀	경영기획 경영기획팀/ CFO	재무 회계 공시 및 시스템 반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사회 대상 설명 포인트 정리 •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한 공시 영향 검토 • 기존 공시 및 금융기관 제출 자료 정합성 점검 • 영업이익 변동의 외감법상 지정감사 위험 연계 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548235;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주석 및 재무정보 공시 항목 필수 범위 정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과를 소통하는 채널 및 현황 파악 • 공시 및 보고자료 내 영업이익 변화 반영 • 외감법상 3년 연속 영업손실 지정감사 위험 시나리오 검토 • 계약·약정상 재무지표 정의 변경 영향 검토 • 신용평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KPI 및 영업이익의 변동 경영진 보고 • 이사회 보고용 IFRS 18 영향 요약 자료 작성 • IFRS 18 관련 주요 정책 변경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서식 내 영업이익의 표시 변경 반영 • 주석 공시 필수 항목 Template 정비 • XBRL 태그 매핑 업데이트 (공시 시스템 반영)

KPI 및 성과평가 영향

영업손익은 기업의 사업계획, 예산, 성과평가, 부문별 실적관리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핵심 KPI의 IFRS 18 전후 변동 폭을 분석하고, 성과평가와 보상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다만 KPI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KPI가 IFRS 18 기준 영업손익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지표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특히 MPM으로 공시될 가능성이 있는 성과지표는 내부 KPI와 외부 공시지표 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경영기획 경영기획팀 / CFO	인사, 현업 인사팀/ 사업부	IT·시스템 IT팀 / 경영관리 시스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KPI의 IFRS 18 전후 변동 폭 분석 • 성과평가·보상체계 영향 여부 사전 점검 • 사업계획·예산 내 영업이익 기준 변경 반영 • MIS 등 경영관리 시스템 내 지표 정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548235;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KPI 전면 재설계보다 기존 지표의 변동 폭 파악 이해관계자 설명 준비 우선</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영향 검토 • 영업이익 기준 변경에 따른 중장기 계획 재검토 • MPM 관련 공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변경 시 성과급 산정 기준 재확인 및 변경 검토 • KPI 변화에 따른 사업부 성과관리 영향 검토 • 변경된 영업이익의 기준 내부 교육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리포팅 체계 내 영업이익 기준 변경 반영 • 경영관리 시스템(MIS) 지표 정의 업데이트 • MPM 산출 시스템 반영 검토

차입약정 및 신용평가 영향

기존 차입약정이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에서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면, IFRS 18 도입에 따른 산출 기준 변경이 약정 준수 여부나 금융기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은 차입약정서 내 재무비율 조항, 이자보상배율 산식, 영업손익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 및 내부통제 영향

IFRS 18 대응은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익항목의 범주 분류, MPM 산출, 두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 등 모두 산출 근거와 검토 절차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업은 주요 판단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는 CoA 변경, MPM 산출 및 검토, 주식 공시자료 작성, XBRL 반영 등 신규 또는 변경된 프로세스에 대해 통제활동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기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증빙자료,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그림 5. 업종/기업 유형별 주요 검토 포인트

업종/기업 유형	핵심 이슈
제조업	외환차이,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영업범주 포함가능성 및 구조조정비용, 손상차손 등의 영업범주 포함 영향 검토
유통·소비재	물류·점포 관련 손익의 분류
지주회사	비연결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관련 손익의 투자 범주 분류 영향
금융업	자금조달 비용의 범주 분류, 은행 건전성 비율 등 금융업 관련 규제 검토
건설·플랜트	외화계약, 파생상품, 프로젝트 관련 금융손익 분류
플랫폼·IT	주식보상비용, M&A 관련 비용, 구조조정비용등 비경상적 비용의 경우 MPM 산정 시 고려 필요
보험사	투자손익과 보험영업성과의 표시 방식, 주된 사업활동 판단, 성과지표 재정렬

출처: 딜로이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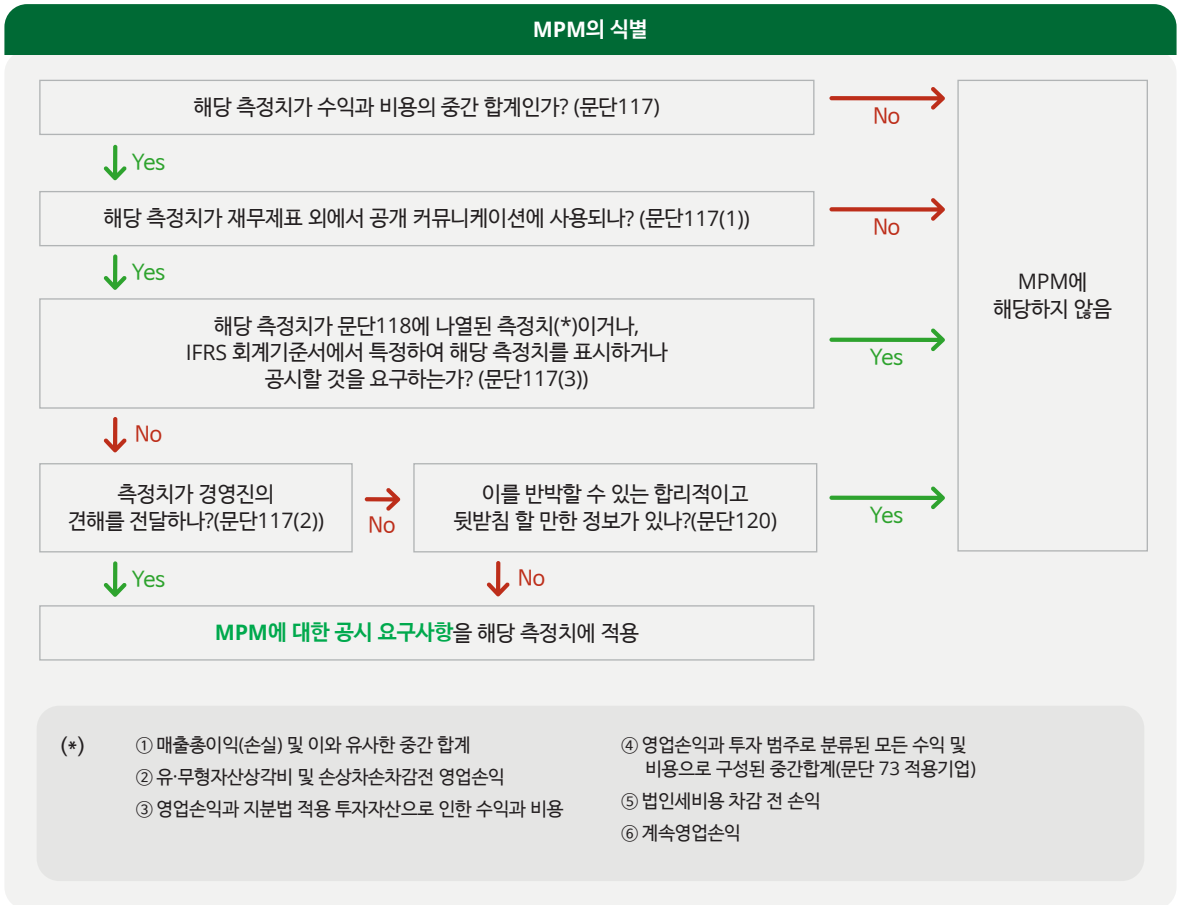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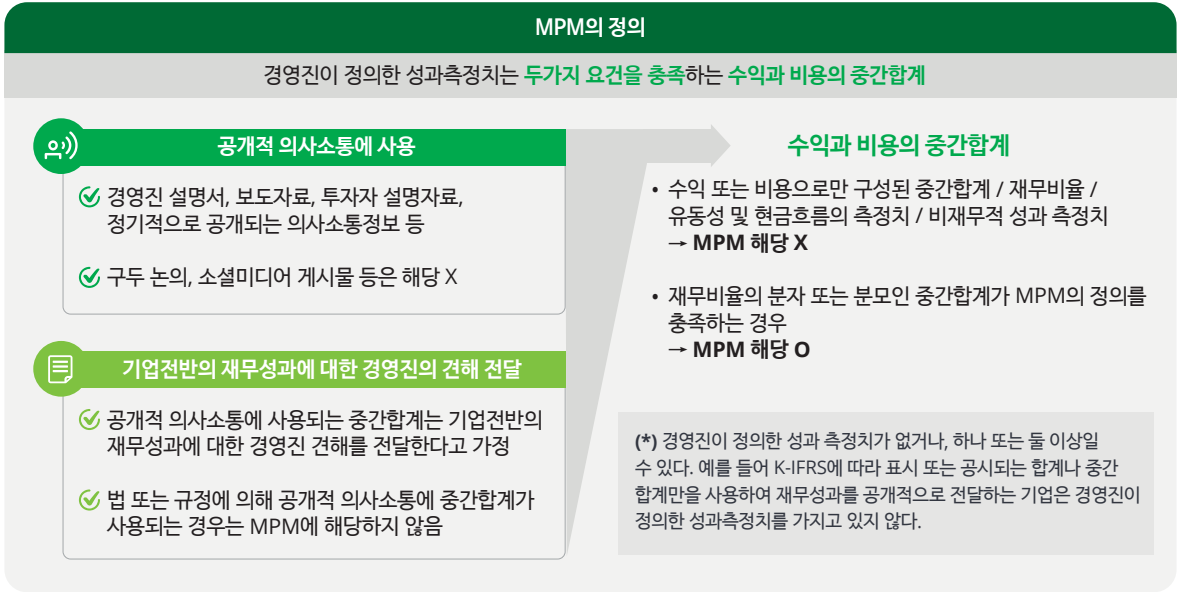
03 MPM 식별 및 공시 대응

IFRS 18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재무제표 외부의 공개적 의사소통에서 사용해 온 성과지표 중 일부가 재무제표 주석 공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PM은 경영진설명서,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 등 기업이 재무제표 외부에서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사용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지표를 말한다. 다만 구두 논의, 구두 논의의 녹취록,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MPM 식별 대상인 공개적 의사소통에서 제외되며,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는 MPM 판단 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MPM 식별의 출발점은 기업이 어떤 공개 채널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은 재무제표 외부의 공개적 의사소통 채널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표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인지, 기업 전체 재무성과를 설명하는지, 경영진의 성과 관점을 전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설명회,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정 영업이익 등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MPM 해당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출처: 딜로이트 분석

MPM 검토 시 중요한 것은 해당 지표가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외부의 공개적 의사소통에서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지다.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지표는 그 자체로 MPM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표가 보도자료, 기업설명회 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MPM 후보로 검토해야 한다. MPM에 해당하는 성과지표가 식별되면, 기업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 MPM 간 차이 조정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차이 조정내역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MPM 공시가 단순한 경영진 설명자료가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의 일부로서 산출 근거와 검토 절차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차이 조정내역은 단순히 금액 차이를 표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조정항목이 무엇인지, 왜 조정되었는지, 해당 조정인 경영진의 재무성과 설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MPM은 기간별로 일관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MPM을 변경, 추가 또는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IFRS 18은 MPM을 변경, 추가 또는 중단하는 경우 관련 설명을 요구하며,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추가 또는 중단을 반영한 비교정보도 재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MPM 관리는 일회성 식별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시 관리 프로세스로 이해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MPM 사례는 국내 기업이 MPM을 식별할 때 지표명 자체보다 조정항목의 성격과 사용 방식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은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성과지표가 있는지, 해당 지표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인지, 그리고 일회성 비용, 손상차손, 구조조정 비용, 외화환산손익 등 특정 항목을 조정해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를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MPM 검토는 IR 부서가 사용하는 지표명을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계-공시 부서는 해당 지표가 어떤 계정과목과 연결되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는 무엇인지, 조정항목별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MPM 대응은 공시 문구 작성에 그치지 않고, 성과지표의 산출 근거와 결산 데이터 연결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림 7. MPM에 대한 공시 및 글로벌 MPM 사례

주요 공시 요구사항	글로벌 MPM 사례		
MPM 설명(문단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8에 기재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합계와 MPM 간의 차이 조정내역 ✔ 차이 조정 내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및 비지배지분에 대한 효과 	조정 당기순이익	조정 영업이익	Adjusted EBIT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e • Microsoft • Chevron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vidia • Walmart • Ge Aero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ip Morris International • IBM • Uber Technologies
MPM 변경/신설/중단(문단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추가 또는 중단에 대한 설명과 그 영향 ✔ 변경, 추가 또는 중단한 이유 ✔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추가 또는 중단을 반영한 비교 정보를 재작성 	주요 조정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보상비용, 자산손상, 세금효과, 외화환산손익, R&D 투자금, 구조조정 비용 등 비경상적 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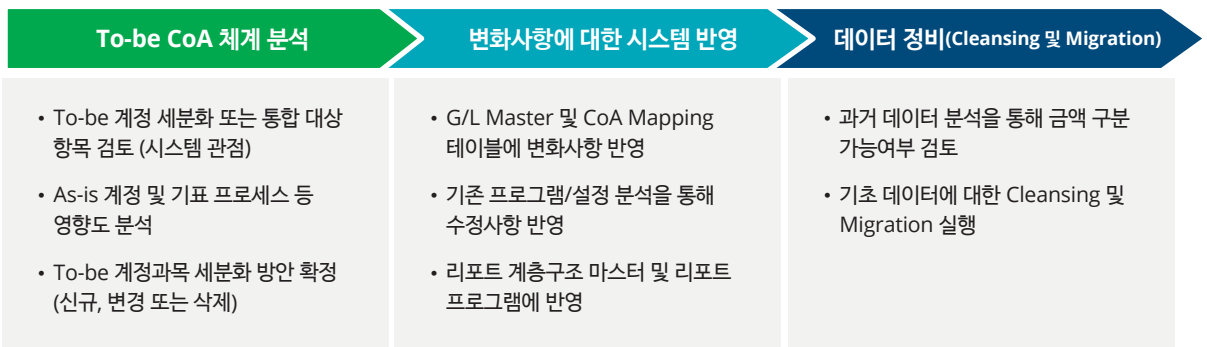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분석



04 실무 실행 체계: CoA·ERP·데이터 정비

IFRS 18 대응은 손익계산서 양식을 바꾸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손익 범주 분류, 신·구 영업손익 병행 산출, MPM 공시, 비교정보 재작성까지 실제 결과와 공시로 연결하려면 CoA, G/L Master, 자동기표 로직, 리포트 산식, 공시 데이터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oA 체계 분석부터 변화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데이터 정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8. IFRS 18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정비 프로세스
시스템적으로 핵심 변화사항은 CoA 세분화 및 이에 따른 재무제표 양식 변경



※ 그룹사 내 공통 또는 사별 특화 정도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가 달라질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분석

CoA 세분화와 손익 범주 분류 체계 정비

IFRS 18 적용을 위해 기업은 우선 기존 CoA 체계에서 손익항목의 영업·투자·재무 범주 분류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기존 계정이 특정 손익 성격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계정과목과 손익계산서 표시항목 간 연결 기준을 통해 IFRS 18 범주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계정에 복수의 손익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면 계정 세분화 또는 보조관리항목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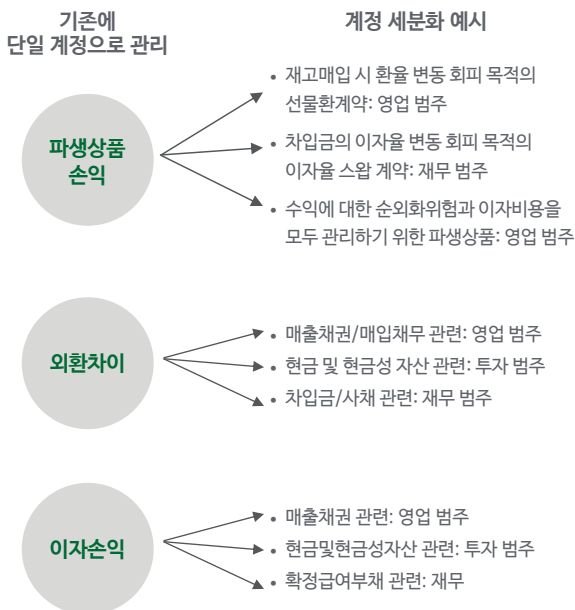
To-be CoA 체계 정비의 핵심은 전체 CoA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IFRS 18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정을 식별하고, 해당 계정의 완전성과 분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외환차이, 파생상품 손익, 이자손익처럼 영업·투자·재무 범주 판단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외환차이는 매출채권·매입채무 관련 외환차이인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관련 외환차이인지, 차입금·사채 관련 외환차이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파생상품 손익도 재고매입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이자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순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범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계정 변경 방식은 회사별 시스템 구조와 결산 프로세스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기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신규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 기존 계정명을 변경하고 필요한 추가 계정을 신설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계정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표 프로세스, 리포트 산식, 과거 데이터 비교가능성, 내부통제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영향도를 점검해야 한다.

그림 9. To-be CoA 체계 정비

As-is에서 단일 계정으로 관리되나,
IFRS 18호 도입 이후 영업, 재무, 투자 범주 중,
2개 이상 범주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가?

기존 계정 금액의 성격, 사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필요

예시



1안) 기존 계정 코드 사용 중지 및 세분화된 신규코드 추가

AS-IS		TO-BE		처리방법
계정코드	계정명	계정코드	계정명	
74010501	외화환산손실	74010501	외화환산손실	Lock 처리
		74010502	외화환산손실-영업	신규
		74010503	외화환산손실-투자	신규
		74010504	외화환산손실-재무	신규

2안) 기존 계정 유지 및 신규 코드 추가

AS-IS		TO-BE		처리방법
계정코드	계정명	계정코드	계정명	
7XXXXX01	외화환산손실	7XXXXX01	외화환산손실-영업	기존유지 & 계정명 변경
		7XXXXX02	외화환산손실-투자	신규
		7XXXXX03	외화환산손실-재무	신규

출처: 딜로이트 분석

To-be CoA 체계가 확정되면 변경사항을 G/L Master와 계정과목·표시항목 연결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신규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체계 내 적절한 계정 범주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표시 항목, 계정 그룹, 수동기표·자동기표 여부, 타 모듈 연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계정에 대한 기표 차단, 리포트 계층구조 내 미사용 계정 분류, 자동기표 규칙 및 관련 연동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CoA가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와 현행 기준 손익 구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계정과 신규 계정, 기존 리포트 양식과 IFRS 18 기준 리포트 양식 간 연결 관계를 정리하고, 기간별·버전별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CoA 변경은 자동기표 설정과 시스템 로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분화 대상 계정으로 자동기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설정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 CBO 프로그램, 즉 기업별로 개발·수정한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 내 소스 로직에 계정과목이 직접 반영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후 기존 계정을 변경 후 CoA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정하고, 데이터 선후 관계를 고려해 변경 대상의 우선순위, 공수,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변경사항을 반영한 후에는 프로그램 또는 설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계정과목 변경을 반영한 기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그림 10. 변화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시스템 내 CoA 반영 (신규/변경/삭제)	신규 계정이 생성되어야 하는 경우	① 계정과목 체계(CoA) 내 적절한 계정 범주 확인 ② 재무제표 표시 및 계정 그룹 결정 ③ 수동기표/자동기표 여부 확인 ④ FI-TR, FI-AA 등 타모듈과 연계 검토 ⑤ 리포트 계층 구조에 반영
	기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미사용 계정에 대한 Block(기표불가) ② 리포트 계층 구조에서 미사용 계정 그룹으로 분류 ③ 자동기표 규칙 및 TR 연동 등 해제
계산, 기표 등 프로그램/설정 분석 및 업데이트	계정 설정 또는 관련 프로그램 (자동기표) 분석	• 세분화 대상 계정으로 자동기표 되는 경우, 설정사항(Setting, Configuration)확인 • 해당 계정과목이 특정 CBO 프로그램 내 소스 로직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는 내역확인
	⇓ 변화사항 반영 방안 수립	• As-is 기준의 계정에 대하여 To-be 로 반영 방안 확정 • 데이터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변경 대상 우선 순위 확정, 공수 산정 및 일정 계획 수립 • 변경으로 인한 영향도 분석
	⇓ 컨버전 실행 및 테스트 수행	• 대상별 일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정사항 업데이트 수행 • 계정과목 변경을 반영한 관련 기표가 잘 생성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 및 테스트

출처: 딜로이트 분석

리포트 버전 관리와 IFRS 18 도입 전·후 손익계산서 병행 산출

IFRS 18 도입 이후 기업은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와 기존 기준 손익계산서를 모두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IFRS 18 기준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K-IFRS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신·구 손익정보를 병행 산출할 수 있는 리포트 버전 관리가 중요하다.

리포트 버전 관리는 다음 네 가지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IFRS 18 도입 이후 데이터를 IFRS 18 기준 신 손익계산서 구조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석 공시 및 내부관리 목적을 위해 도입 이전 기간의 데이터는 기존 손익계산서 구조로 조회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도입 이후 기간의 데이터 역시 기존 손익계산서 구조로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입 이전 기간의 과거 데이터를 IFRS 18 기준 신 손익계산서 구조로 재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리포트 계층구조 마스터와 리포트 산식을 버전별·기간별로 관리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리포트 구조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그림 11. 리포트 프로그램 수정 또는 신규 개발

		버전 관리	
구분	IFRS 18호 표시방법	IFRS 18호 전	IFRS 18호 전
기간 관리	도입 이후(27년~)	01 신규 손익계산서 구조 조회 ✓ 자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8 기준 신 P&L 구조로 조회 신 P&L 리포트 구조 추가 관리 신 P&L 리포트 구조-신 CoA와의 매핑 작업 	03 주식 공시 및 내부 관리 목적 ✓ 자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8 도입 이후의 데이터를 기존 P&L 구조로 조회 기존 P&L 리포트 구조-신 CoA와의 매핑 작업
	도입 이전(~26년)	04 비교 공시 목적 ⚠ 부분자동 + 수기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데이터를 IFRS 18 기준 신 P&L 구조로 조회 신 P&L 리포트 구조-기존 CoA와의 매핑 작업 (단, 2개 이상으로 세분화 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영향도를 고려하여 대표 범주로 임의지정 & 수기 보정 필요) 	02 기존 손익계산서 구조 조회 ✓ 자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P&L 구조 그대로 조회되도록 구현(현행 유지)

출처: 딜로이트 분석

비교정보 재작성과 데이터 정비

IFRS 18 최초 적용 시 비교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의 상세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 계정이 IFRS 18 기준에서 둘 이상의 범주로 세분화되어야 하는 경우, 과거 데이터가 해당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범주 지정 또는 수기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데이터 정비는 과거 금액을 단순 재분류하는 작업이 아니다. 신규 CoA 기준으로 데이터를 상세화하고, 오류를 검증하며, 재무 원장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비교정보 대상 기간의 데이터 상세화 가능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신규 CoA 기준 데이터 구분 및 검증, 데이터 정비 및 이관(Migration) 실행, 결과 검토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시 시스템 및 XBRL 반영

IFRS 18 도입으로 손익계산서 구조와 주식 공시 항목이 변경되면, 공시 시스템과 XBRL 구조화 파일에도 영향이 발생한다. 기업은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 양식, MPM 공시, 통합·세분화 관련 주식 항목 등이 공시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특히 리포트 버전 관리와 XBRL 반영은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ERP 또는 결산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액이 공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정, 리포트 라인, 주식 항목, XBRL 태그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한다. 수기 입력이나 엑셀 기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이력과 검토 절차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05 단계적 도입 로드맵과 사후 관리

IFRS 18의 회계·공시·시스템 과제를 실제 적용 일정에 맞춰 실행하려면 단계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적용 시점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만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향도 분석부터 비교정보 준비, 시스템 반영,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IFRS 18 전환 로드맵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도입에 따른 재무·시스템 영향을 진단한다. 둘째, 회계정책, CoA, MPM 판단 기준을 설계한다. 셋째,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를 예비 작성하고 신·구 영업손익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ERP·리포트·공시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다섯째, 내부통제, 교육, 감사인 협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착시킨다.

Phase 1 영향도 분석 및 재무·IT 차이 진단

IFRS 18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계정, 손익 범주, 성과지표, 시스템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다. 특히 외환차이, 파생상품 손익, 이자손익 등 성격이 혼재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검토하고, 현행 시스템이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와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모두 산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Phase 2 회계정책, CoA, MPM 판단 기준 설계

IFRS 18 손익 범주별 분류 원칙을 회계정책 문서에 반영하고, 주된 사업활동 판단, 외환차이·파생상품 손익 등 주요 판단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CoA 측면에서는 계정 유지·신설·사용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MPM 측면에서는 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별 성과지표를 점검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Phase 3 재무제표 예비 작성 및 주요 재무지표·손익구조 변화 검토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를 예비 작성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손익항목의 분류 변경이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KPI, MPM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고, 보완 조정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Phase 4 ERP·리포트·공시 시스템 반영

예비 작성 결과와 설계안을 바탕으로 ERP, 자동기표 설정, 리포트 구조, 공시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IFRS 18 전후의 영업손익 주석 공시를 병행해야 하므로, 시스템이 두 가지 손익정보를 모두 산출할 수 있도록 리포트 구조와 데이터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Phase 5 내부통제, 교육, 감사인 협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정착

IFRS 18 적용 체계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변경된 손익 범주 분류 기준, CoA 변경사항, MPM 산출 방식, 신·구 영업손익 차이 조정, 주석 공시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실무 교육, 감사인 협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림 12. IFRS 18 단계적 도입 로드맵



출처: 딜로이트 분석

IFRS 1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초기 적용이 허용된다. 또한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시 비교정보 재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7년 적용 기업이라도 비교기간에 대한 데이터, 분류 판단, 시스템 산출 가능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IFRS 18 도입 로드맵의 핵심은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계정책 판단, 데이터 구조, 시스템 산출, 공시 문구, 내부통제가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최초 적용 이후에도 MPM 변경, 사업구조 변화, 조직 개편, 신규 거래, 시스템 변경이 IFRS 18 공시와 영업손익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참고문헌

- IFRS Foundation,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 IFRS Foundation, Effects Analysis: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April 2024.
- 금융위원회,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2025.12.18.
- 금융감독원,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2026.04.14.
- 한화투자증권, IFRS 18 도입이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2024.4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IFRS 18 CoE

한국 딜로이트 그룹 IFRS 18 CoE는 IFRS 18 도입이 가져올 회계·공시·시스템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IFRS 18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부터 현행 K-KFRS 기준 영업손익 병행 산출, MPM 식별 및 공시 대응, CoA·ERP 영향 검토까지 기준 적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금융, 제조, 유통·소비재 등 산업별 담당 전문가 체계를 기반으로 업종별 손익 구조와 공시·성과관리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재무성과 정보 산출·공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형식 파트너

IFRS 18 CoE Leader

☎ 02 6676 1415

✉ hymoon@deloitte.com

김재현 파트너

금융

☎ 02 6676 1175

✉ jae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제조

☎ 02 6676 1674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유통·소비재

☎ 02 6676 3259

✉ minjyoo@deloitte.com

박희완 파트너

정보통신·플랫폼

☎ 02 6676 3437

✉ heewpark@deloitte.com

김현근 이사

건설·플랜트

☎ 02 6676 3202

✉ hyungu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